

첫 올림픽 값진 은메달...이다빈은 강했다

강산 기자의 여기는 지바

만디치 추격 거듭하다 결국 패배 후엔 만디치 향해 '엄지척' 끝까지 당찬 모습, 존재감 각인 남자 인교돈, 암 투병 딛고銅



태권도 노골드의 한을 풀진 못했지만, 최고의 경기력을 뽐내며 이름을 각인했다. 이다빈(25·서울시청)이 첫 올림픽 메달을 은메달로 장식했다.

이다빈은 27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홀A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 초과급 결승에서 밀리카 만디치(슬로바키아)에 7-10으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이다빈은 이번 올림픽 태권도대표팀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첫 올림픽 무대를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결승 진출 자체가 극적이었다. 세계랭킹 1위 비앙카 워크텐(영국)을 상대로 22-24로 패색이 짙던 종료 3초전 회심의 머리공격(3점)을 성공하며 대역전 드라마를 써냈다. 이번 대회 태권도대표팀의 최고 성적(종전 동메달)을 확정된 순간이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 게임(AG)이 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금메달도 좋지만, 내 경기가 재미있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좋다"던 그는 올림픽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했다.

중압감이 엄청난 결승전을 앞두고도 크게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1라운드는 힘겨웠다. 머리공격과 몸통공격(2점)을 연달아 허용하며 0-5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2라운드서 상대 감점과 몸통공격으로 3-6까지 추격에 성공했다.

남은 2분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다. 3라운드 초반부터 꾸준히 공격을 시도하며 득점을 노렸다. 진짜 반격은 1분

을 남기고 시작했다. 주먹공격과 몸통공격을 연달아 성공하며 6-6 동점을 이뤘다. 그러나 곧바로 주먹공격과 몸통공격을 허용하며 리드를 뺏겼고, 설상가상으로 감점까지 받아 흐름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러나 패배 직후에도 만디치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며 승리를 축하하는 품격을 보여줬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찬 모습은 변함없었다.

남자 80kg 초과급의 인교돈(29·한국가스공사)은 동메달결정전에서 이반 콘래드 트라이코비치(슬로바키아)를 5-4로 꺾고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2014년 혈액함의 일종인 림프종 2기 진단을 받고 불굴의 의지로 병마를 이겨냈고,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값진 메달을 거머쥐었다. 인교돈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때까지 응원해준 가족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 태권도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노골드'로 올림픽을 마무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바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이다빈 ▲생년월일=1996년 12월 7일(울산) ▲키=178cm ▲소속=서울시청 ▲세계랭킹=4위(+67kg급) ▲수상 내역=2020도쿄올림픽 +67kg 은메달, 2019년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그랑프리시리즈 1차 대회 +67kg급 1위, 2019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73kg급 1위



이다빈(왼쪽)이 27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멧세홀A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 초과급 결승에서 만디치를 상대로 활차기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이다빈(왼쪽)이 패배 후 금메달을 딴 만디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축하 인사를 전하는 모습. 지바(일본) | 뉴시스

한국태권도 사상 첫 '노골드 수모' 왜?

각국 선수들 기량 상향평준화 코로나 여파로 실전감각 저하

대한민국은 태권도 종주국이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2000년 시드니대회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대회까지 최소 금메달 한 개씩은 따낸 덕에 '역시 종주국은 다르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020도쿄올림픽에선 끝내 '노골드'의 수모를 피하지 못했다. 27일 여자 67kg 초과급 이다빈(서울시청)이 은메달, 남자 80kg 초과급 인교돈(한국가

스공사)이 동메달, 24일 남자 58kg급 장준(한체대)이 동메달을 거머쥐었을 뿐이다. 장준은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고, 남자 68kg급 이대훈(대전시체육회)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금메달이 가능했기에 충격이 더 크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기량의 상향평준화다.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8강전에서 이대훈을 꺾었던 아흐마드 아부가우쉬(요르단)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다. 세계 각국의 여러 선수들이 착실히 국제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선수는 갈

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번 대회 여자 49kg급 금메달리스트 파니파 옹파타나킵(태국)은 리우올림픽 때는 8강전에서 탈락했던 선수다. 당시 세계랭킹 2위임에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5년간 경험을 축적하고 멘탈을 강화한 끝에 올림픽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여자 57kg급에서 올림픽 3연패를 노리던 제이드 존스(영국)도 이번 대회 16강전에서 무너졌다. 계속해서 경기방식이 변하고, 선수들은 그에 맞춰 적응한다. 새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선수들이 기존 강자들을 제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전감각의 저하도 무시

할 수 없는 요소다. 국내선수들은 2019년 12월 월드컵파이널(러시아 모스크바) 이후 출전한 국제대회가 전무했다. 지난해 1월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이후 이번 올림픽까지 공식경기를 전혀 치르지 못했던 장준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해 실전감각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누구나 비슷한 처지였음에도 유독 우리 선수들의 실전감각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다.

여기에 종주국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경기력에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모든 태권도인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하다.

지바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여자펜싱에페대표팀 최인정(오른쪽)이 27일 지바 마쿠하리멧세홀B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에스토니아의 율리아 벨리아예바를 상대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지바(일본) | 뉴시스

대한민국 펜싱이 2020도쿄올림픽 첫 은메달을 수확했다.

최인정(31·계룡시청), 강영미(36·광주서구청), 송세라(28·부산시청), 이혜인(26·강원도청)으로 구성된 세계랭킹 4위 여자펜싱에페대표팀은 27일 지바 마쿠하리멧세홀B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동유럽의 강호' 에스토니아에 32-36으로 져 은메달을 땀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큰 아픔을 겪었던 태극양자대이기엔 충분히 값진 결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올림픽 메달까지 거머쥔 최초의 한국선수들이라 드라마틱했다.

여자에페대표팀은 지난해 3월 해외전지 훈련을 겸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국제그랑프리대회에 출전했다가 귀국한 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휘말렸다. 상황은 참혹했다. 헝가리대회에 나선 4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가대표 첫 확진'이란 꼬리표는 지긋 지긋했다. 지금은 훨씬 덜하지만 당시만 해도 온갖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낯선 여론에 몸과 마음은 위축됐다. 한 선수는 "주변사람 모두가 우리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며 서글픈 기억을 더듬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경기종합

27일(화)



정영식(위)이 27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3회전 도중 상대의 공격을 집중력 있게 받아내고 있다. 전지희(아래)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여자단식 3회전에서 프랑스의 유안지아난을 꺾고 16강에 올랐다. 도쿄 | AP뉴시스

탁구 에이스 정영식 8강 스매싱 샷별 신유빈, 32강 아쉬운 탈락

배드민턴 여자복식 김소영-공희용 8강 진출

정영식(미래에셋증권)이 2020도쿄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8강에 올랐다.

정영식은 27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올해 유럽선수권대회 우승자인 티모 불(독일)을 세트스코어 4-1(11-8 7-11 11-7 11-9 11-4)로 물리쳤다.

세계 13위 정영식은 세계 10위 불을 맞아 다소 고전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기본 좋게 출발했다. 1세트 초반 3-5의 열세를 딛고 끈질긴 추격전을 펼친 끝에 역전에 성공한 뒤 결국 11-8로 이겼다. 2세트를 내준 정영식은 승부의 분수령이 된 3세트에서 한 박자 빠른 백핸드 푸싱과 파워 넘치는 드라이브로 불을 공략해 11-7로 이겼다. 기세를 살려 4세트에서도 6-6 동점에서 강한 뒷심을 발휘하며 11-9로 이긴 뒤 5세트도 11-4로 따내며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17세의 신유빈(대한항공)은 32강 판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신유빈은 세계 15위 두호이켄(홍콩)에 2-4로 져 탈락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안세영(삼성생명)은 조별리그 2연승으로 조 1위로 16강에 안착했다. 안세영은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도르카스 아조크 아테스칸(나이지리아)을 2-0으로 완파했다. 1차전에서 세계랭킹 67위 클라라 아수르멘디(스페인)를 2-0으로 누른 데 이어 연승을 달렸다. 앞서 여자복식 세계랭킹 5위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은 조 2위로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남태윤(보은군청)-권은지(울진군청)는 이번 대회 신설종목인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단체전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동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남태윤-권은지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게이 카넨스키-율리아 카리모바(ROC)에게 9-17로 패했다. 본선 2차전 3-4위 팀이 겨루는 동메달 결정전은 16점을 먼저 획득하는 팀이 승리한다. 초반 0-4로 끌려가던 남태윤-권은지는 3번째 격발부터 내리 포인트를 따내 6-4로 역전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 포인트를 내졌고, 막판까지도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여자핸드볼대표팀은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네덜란드에 36-43으로 져 2연패를 당했다. 한국은 29일 일본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개막 이틀 전 올림픽 출전 티켓을 극적으로 받은 유도 남자 81kg급 이성호(한국마사회)는 16강에서 탈락했다. 이성호는 타도 그리갈라슈빌리(조지아)와 16강전에서 경기 시작 2분 16초 만에 안다리 후리기로 한판패를 당했다. 한희주(KH그룹 필룩스)는 여자 63kg급 32강전 티나 트르스테나크(슬로베니아)와 경기에서 골든스코어(연장) 접전 끝에 안다리 후리기 절반패로 탈락했다.

최현필 기자 choihg2@donga.com

코로나 극복하고 은메달 거머쥔 '펜싱 에페'의 기적

2명이 '국가대표 첫 확진'...따가운 시선 서로 치료 받으며 회복...팀워크로 우뚝

대한민국 펜싱이 2020도쿄올림픽 첫 은메달을 수확했다.

최인정(31·계룡시청), 강영미(36·광주서구청), 송세라(28·부산시청), 이혜인(26·강원도청)으로 구성된 세계랭킹 4위 여자펜싱에페대표팀은 27일 지바 마쿠하리멧세홀B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동유럽의 강호' 에스토니아에 32-36으로 져 은메달을 땀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큰 아픔을 겪었던 태극양자대이기엔 충분히 값진 결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올림픽 메달까지 거머쥔 최초의 한국선수들이라 드라마틱했다.

여자에페대표팀은 지난해 3월 해외전지 훈련을 겸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국제그랑프리대회에 출전했다가 귀국한 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휘말렸다. 상황은 참혹했다. 헝가리대회에 나선 4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가대표 첫 확진'이란 꼬리표는 지긋 지긋했다. 지금은 훨씬 덜하지만 당시만 해도 온갖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낯선 여론에 몸과 마음은 위축됐다. 한 선수는 "주변사람 모두가 우리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며 서글픈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도 포기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동지애를 더욱 끈끈히 다질 수 있는 계기였다. 언니와 동생들은 치료 중에도, 또 건강을 회복한 뒤에도 떠나할 것 없이 안부를 묻고 용기를 북돋았다. 자칫 와해될 수 있던 '팀워크'가 오히려 살아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자 거칠 것이 없었다. 특히 세계랭킹 1위의 '속적' 중국을 준결승에서 제압하며 결승까지 올랐다. 비록 마지막 판문은 넘지 못했으나, 그들의 올림픽 여정은 후회스럽지 않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